

보도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일자	2022. 7. 4.(월) / 총 3매 (본문 2, 사진 1)	
배포부서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051-797-4381/4384, pr@kmi.re.kr)	
담당부서	·해운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 이호춘 실장(051-797-4623, leehochoon@kmi.re.kr) - 안영균 전문연구원(051-797-4643, ahnyg@kmi.re.kr)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 연안해운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협력 강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이하 KMI)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 이하 해운조합)은 6월 30일(목) KMI 컨퍼런스룸에서 한국 연안해운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분야에 있어 양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은 연안해운에도 영향을 미쳐 여객과 화물의 수송수요 감소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연안해운업계는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최근 들어 국제 유가의 급격한 인상은 연안해운업계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연안해운 발전 관련 정책연구와 실행에서 보다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로 했다. 특히, ▲ 연안해운 관련 동향 분석 및 정책연구 수행 협력 ▲ 연안해운 관련 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협조 ▲ 내항선 선박금융 도입을 위한 정책 개발 협력 ▲ 연안여객선 대중교통 정착을 위한 면허제도 및 운임체계 개편 협력 ▲ 내항상선 선원 수급 문제 해결 및 정책 발전 협력 ▲ 상호 초청강연·자문 및 세미나·심포지엄 등의 공동 개최 ▲ 기타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는 사항 등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연안해운의 미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내항선사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조합과 국책연구기관인 KMI의 연구기반이 긴밀히 연계되어, 한국 연안해운의 도약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해운산업 지원 대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덕 KMI 원장과 임병규 해운조합 이사장은 “최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정부, 연구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삼아 더욱 더 발전하는 우리나라 연안해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의 업무협력과 교류증진을 보다 활성화 할 것이며,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함으로써 연안해운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붙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해운조합 업무협약 체결 사진

